

2016년 새 아침,
168개의 태양이 떠오르는 곳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168개의 보석같은 섬을 품은
인천의 꿈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인천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굿모닝 인천



01
JANUARY
2016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의 하늘로 힘차게 날개를 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0년 연속 1위, 세계 국제화물운송 3위, 세계 국제여객운송 9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눈부신 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 '인천 가치 재창조' 시리즈 그 첫 번째 인천국제공항



연평도 바다로

남해림 작사, 김준영 작곡, 이규남 노래

두리두리 뚱뚱 가는 님아/ 어리어리 얼싸 언제 오려나/ 어기여차 이여차 이여차/
배 떠나간다 배 떠나간다/ 아아아아 님을 싣고/ 연평바다 조깃배 뚫다 좋다/
우리 님 가시는 길에는 순풍이 분다네/ 음 순풍이 분다네

두리두리 뚱뚱 가는 님아/ 어리어리 얼싸 언제 오려나/ 어기여차 이여차 이여차/
배 떠나간다 배 떠나간다/ 꿈 실러 간다 꿈 실러 간다/ 만경창파 뱃머리에 사랑이 뚫다 좋다/
우리 님 가시는 길에는 물결도 잔다네/ 음 물결도 잔다네

두리두리 뚱뚱 가는 님아/ 어리어리 얼싸 언제 오려나/ 어기여차 이여차 이여차/
배 떠나간다 배 떠나간다/ 바다로 간다 바다로 간다/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이번에는 정말 좋다/
우리 님 돌아오실 날도 나 혼자 안다네/ 나 혼자 안다네

올해 우리시의 정책 화두는 '인천 가치 재창조'이다. 이를 널리 알리고자 1월호부터 '인천의 노래'를 연재한다. '연평도 바다로'는 일제강점기에 불린 노래로 연평도의 조기잡이가 주제다. 연평도에는 조기잡이 철이 되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고, 5~6월에 걸쳐 잡은 조기는 한 마리에 수 십만원까지 치솟았다. 보릿고개 때도 연평도는 개까지 쌀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내용이 노래가사에 그대로 낙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출처 : 일제 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인천/ 이영태/ 2005>

CONTENTS

2016 JANUARY | VOL.265
INCHEON MONTHLY MAGAZINE



08



14



28

06	2016 새해 인사
08	스페셜 채드워국제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
11	인천 스케이트장
14	인천은 촬영 중 도시 재생 공간 '카페발로'
18	2016 이렇게 달라집니다
24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 연안부두
28	우리는 인천 토지금고 마을 사람들
34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① 인천여성 편

40	1월의 문화 행사
44	포커스 국비 확보
45	좁은 경인고속도로
46	NEWS BRIEF
50	COUNCIL NEWS
52	INFO BOX
56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야'
58	모닝 커피 한잔 박원형 가족치료 전문 상담사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바로북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팀장) 사진 김성환·김상덕·유창호(자유사진가) 디자인 ㈜씨에디터
발행일 2016년 1월 1일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인천시 미디어

-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 인천시 블로그 '잉크'(incheonblog.kr)
-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 소셜웹(social.incheon.go.kr)
-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 페이스북(facebook.com/visionincheon)
- 블로그(incheonblog.kr)



인천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여객터미널의 연락처를 문의 드립니다.

아라 종합안내센터의 연락처는 1899-3650입니다. 참고로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뱃길로, 수변을 따라 수향 8경과 파크웨이 등 친수공간이 다채롭게 펼쳐지며 대한민국의 녹색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송도컨벤시아에 가려고 합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송도컨벤시아는 지난 2008년에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지상 3층 지하 1층의 대규모 전시장입니다. 주소는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동 6-1)이며, 연락처는 210-1114입니다.

석바위시장 근처에 있는 삼미쇼핑 앞 버스정보시스템이 없어진 지 한 달 정도 되었네요. 사람도 붐비는 데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시민께서 문의하신 버스정보안내기는 버스승강장 교체공사로 잠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위한 브라켓 제작을 완료한 후 작년 12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해넘이 명소를 알려주세요.

강화도 장화리 낙조마을은 우리나라 서해안 3대 일몰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강화의 아우 섬 석모도도 해넘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화터미널관광안내소 930-3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1월 1일에 문학산 정상을 개방하나요?

인천시는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50년 만에 문학산 정상을 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문학산 정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문화재과 44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인천만의 가치' 일깨우는 굿모닝인천



독자 김미숙(61, 서구)

어느 날 <굿모닝인천> 편집실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안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살아온 사연이 뽀뽀이 적힌 글과 오래된 흑백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숙(61) 독자는 동구 화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냉면거리로 유명한 화평동에는 당시 양복점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북녘땅에서 내려와 고향에서 배운 재단기술로 양복점을 차리셨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점잖고 반듯한 신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셋과 화평동을 떠나 송현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빌라가 우후죽순 솟아났지만 당시 송현동 골목에는 일본식 사택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억 속 으리으리했던 일본식 2층 집은 지금 찾아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꼬마 아이들로 북적이던 동네는 텅 비어있습니다. 그리워서 가보았는데, 마음이 아려옵니다. <굿모닝인천>은 강화도 양도면에서 면장님을 하시던 시아버지 때부터 읽어보았습니다. 20여 년이 다 되어갑니다. 인천에서 나고 살아왔어도 인천에 대해 잘 모르는데 세세하게 일깨워줘서 참 고맙습니다. 섬, 바다, 신도시, 공항, 항구... 인천은 다른 도시에는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니 '인천 가치 재창조'를 시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천이 더 크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숫자로 보는 인천

260

인천에 있는 목욕탕은 몇 개 일까? 2015년 말 현재 인천에 등록된 목욕탕수는 260개였다.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목욕탕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00년 102개, 2005년 179개, 2010년 227개, 2015년 260개였다. 목욕탕이 줄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랐다. 시설도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고 있었다. 2천㎡ 이상 대형 목욕탕이 2000년에 1개, 2005년 29개, 2010년 41개, 2015년 46개였다. 예전 목욕탕은 빨간 굴뚝에 온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신년이 되면 몸을 깨끗이 하고 새해를 맞겠다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목욕탕을 갔다. 새해 시작 전이나, 명절에는 줄을 서서 들어갔던 적도 있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김호숙 사무국장에 의하면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은 남구 학익동 법원 근처에 있는 '송화탕'과 중구 흥예문 부근에 있는 '제일탕'이다. 이들 목욕탕은 70년대 초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곳도 현재 영업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사무국장에 의하면 1995년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이 인기를 끌면서 당시 목욕탕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목욕업은 3D업종이다. 지금은 장사도 잘 안되고 하향 추세다. 이름도 목욕탕이 아닌 '사우나'라는 명칭이 대체다. 목욕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고 있다.



“300만 시민과 함께, 놀라운 변화를 ‘이상’ 아닌 ‘현실’로”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시의 숙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한 해였습니다. 2016년 인천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더욱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2016년은 ‘재정건전화 실현의 해’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정건전화의 토대 위에서 올해 예산 중 7천 173억 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재정건전화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과거 최대 39.9%까지 이르렀던 채무 비율을 31%대로 낮추겠습니다.

가치를 재창조해, 인천을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최초, 최고(最古)의 역사와 문화, 168개의 섬,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우리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그 가치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집약·발전시켜 나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개항과 옛 인천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한 원도심 고유의 자산과 가치들을 발굴해 재창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착상태에 놓인 현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LH와 루원시티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뤄냈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검단 새빛도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연륙교 역시 시에서 기본설계를 우선 추진하여 최적의 건설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경인고속도로도 기점에서부터 서인천IC까지 일반화하고 신월IC까지 지하화하는 것을 확정지어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의 변화와 발전으로 시민 여러분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성 있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가시적인 희망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겠습니다. 특히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작지만 큰 희망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천, 300만 시민이 단합한다면 놀라운 변화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인 인천의 발전가능성을 확신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인천의 변화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QR코드를 찍으면
신년사 전문과
새해 인사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인천의 비전 제시하겠습니다”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제7대 인천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인천은 갤러리 10만 여 명이 방문한 아시아 최초의 프레지던츠컵과 국제기구 수장 및 교육 전문가 1천500명이 참석한 세계교육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 세계에 인천을 알리고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제7대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송도한옥마을과 로봁랜드의 사업성 문제,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도시공사와의 업무 인수인계의 시의 적정성 여부, 지하도 상가 불법 재 임대 등 여러 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인천 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준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 ‘인천내항 1·8부두 항만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 개방 촉구 결의안’ 등 인천가치 재창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여·야 구분 없이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30년 밝은 미래를 보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희망찬 인천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알리듯 우리시가 제3연륙교 80억 원, 인천 발 KTX사업 35억 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3억 원, 국립세계문화박물관 건립 15억 원, 도시재생사업 15억 원,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 30억 원 등을 골자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천520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7대 인천시의회 35명 시의원은 우리시가 국제도시 반열에 오르는 데 요긴하게 쓰일 예산을 확보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또 올해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인천시의회를 향한 인천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노 경 수



QR코드를 찍으면
신년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추워서 더 신난다! 인천 스케이트장

눈과 얼음의 계절이 돌아왔다. 은행반 같은 얼음 위에서 장갑과 머플러를 하고 스케이트를 타는 낭만과 즐거움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에는 살을 에는 듯한 추위도 잊는다.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생생한 웃음이 피어난다. 겨울이 주는 선물이다. 최근 인천에도 겨울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다.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 피겨, 컬링 등도 즐길 수 있다. 인천에서도 할 수 있는 겨울스포츠가 한층 풍성해졌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채드워국제학교 학생들, 열기 후끈

반짝거리는 스케이트 날이 시원스럽게 미끄러지며 얼음 위를 가로지른다. 스케이트가 얼음을 지치며 내는 소리가 경쾌하고 시원하다. 얼음 위 온도는 영하 3~4도. 헬멧을 쓰고 보호 장비를 입은 선수들이 박력있게 스케이트를 지치며 스틱으로 퍽(아이스하키공)을 날린다. 얼음 바닥은 차갑지만 선수들의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난다. 영하의 날씨에도 실내 빙상장은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아이들의 열기로 후끈하다.

인천의 유일한 실내빙상장인 선학국제빙상장 지하 1층에서는 토·일요일마다 채드워국제학교 학생들이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있다. 연령대도 4, 5세 유

치부 어린이부터 중·고생까지 다양하다. 등록된 학생 수도 40명이 넘는다.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부터 꽤 오래 아이스하키를 한 학생들까지 코치의 지도에 따라 아이스하키 경기규칙과 게임하는 방법을 배운다. 채드워국제학교 외국인 코치는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 게임 방법을 지도했다. 스틱으로 얼음을 두드리며 퍽을 상대방 팀에 뺏기지 않도록 유도한다. 아이들은 서로 퍽을 뺏으려고 빠르게 달려온다. 이때 스피드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퍽을 뺏기지 않으려고 속도를 내며 요리조리 굴리며 골대로 향해 달려간다. 상대 선수들이 퍽을 뺏으려고 달려오면 몸싸움도 한다. 퍽이 골대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선배들이 옷, 장비 등 기부

송도 채드워국제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는 작년 4월 결성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족 스포츠, 돈이 많이 드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선배들로부터 유니폼, 스케이트, 스틱을 기증받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어 실제론 큰돈이 들지 않는다. 아이스하키 동아리는 외국학교의 특성상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겼다. 이 동아리에는 채드워국제학교 학생뿐 아니라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싶어 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에 학교 제한은 없다. 채드워국제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들과 빙상장에 나온 한 어머니는 아들이 원해 방과 후 활동으로 아이스하키를 시키고 있다. 아이가 보호 장비

를 넣은 옷을 입으면 로봇이 된 것 같으며 매우 좋아한다. 스케이트가 미숙해 자주 넘어지고 균형을 잡느라 진땀을 흘리지만 즐거워하기 때문에 계속 시킬 생각이다. 채드워국제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윤부길(42) 감독은 아이스하키가 팀으로 하는 구기 종목이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 중 가장 화려하고 스피디하다고 소개한다. 그래서 동계 스포츠 종목 중 티켓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흥행이 가장 잘 된다고 한다. 윤 감독은 아이스하키의 장점을 “협동심과 배려, 매너를 기를 수 있는 점”이라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체력과 협동심, 대인관계를 키우는데 최적의 스포츠”라고 밝혔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새로 지어져 최고 시설 자랑

겨울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인천에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오픈하면서 겨울스포츠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다. 작년 2월 오픈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국제 수준을 자랑한다. 빙상장 건물은 대형 빙하의 이미지를 디자인화했다. 국제규격인 빙상경기장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각각 있고 컬링경기장이 따로 있다. 지하 1층 빙상경기장은 주로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에게 대여된다. 아이스하키, 피겨, 쇼트트랙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쓰인다. 선수들은 그동안 서울에 있는 경기장을 주로 이용하다가 선학경기장이 생기면서 훈련장소를 이곳으로 옮겼다. 빙상경기장을 찾은 작년 12월 15일에도 청소년 여자 피겨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선수 육성을 맡고 있는 조성만 코치는 빙상경기장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동남스포피아나 서울에서 훈련을 했다고 한다. 이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게 됐

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선수들도 올해부터는 인천으로 전학을 와 인천 선수로 대회에 나간다고 설명했다. 1층 빙상장에서는 자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스케이트를 타러 온 사람들이 트랙을 돌고 있다. 하루 1백~2백 명이 이용할 정도로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 지은 곳이라 빙상장 중엔 시설이 가장 좋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는 스케이트 강습도 이뤄진다.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이 있고, 정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스피드와 피겨 강습이 있으며 각반 정원은 20명이다. 컬링경기장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컬링강습이 진행된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는 핸드볼 경기장으로 사용됐다. TIP : 입장료 어린이 2천원, 군인청소년 3천원, 일반 4천원. 스케이트 대여료는 3천원. 대여 시간은 3시간. 전화 821-5723





**동인천북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겨울스포츠 새 명소로

인천 구도심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시민들을 위한 레저 시설인 야외 스케이트장이 생겼다. 스케이트장이 생기기 전에는 야외 행사가 자주 열리던 곳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이곳에 겨울스포츠의 꽃인 스케이트장이 생기면서 사람들로 가득차고 활기가 넘치고 있다. 낮에는 물론이고 늦은 저녁에도 스케이트를 타는 젊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눈에 많이 띈다. 찬바람이 불어 불이 빨개져도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즐겁다. 스케이트장 개장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은 인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야외 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스케이트장의 풍경을 만들고 있다. 4개 조명탑에서 나오는 은은한 블루컬러 조명은 야간 사진 촬영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스케이트장은 국제규격(1천800㎡, 60m×30m)의 경기장으로 최대 4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대여료를 포함해 1시간 이용료가 2천원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 다둥이가정은 50% 이상 이용료가 감면된다. 스케이트장은 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문의 766-0377



인천국제공항공사 지하 1층 교통센터에는 사시사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스케이트장이 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이스 스케이트 장소로 출발했지만, 얼음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라인스케이트로 바뀌었다. 바닥은 인체에 무해한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썼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천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틈을 낸 외국인들이나 공항 직원들, 인근 주민이다. 오전 10시에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다. 365일 쉬는 날은 없다. 공항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이다. 이스라엘에서 온 로베르토 스트라우스 씨는 다음 비행기를 타기 전 잠깐 짬을 내 딸들과 함께 스케이트장에 들렀다. 다음 비행기 시간까지 비어있는 30분 동안 아이들과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겼다. 파나마에서 온 에일린 씨도 딸들과 1시간 동안 인라인스케이트를 탔다. 그녀는 여덟 살, 열한 살인 딸들과 공항 스케이트장을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공항 스케이트장의 이용료는 시간당 어린이 3천원, 청소년 4천원, 성인 5천원이다. 전화 743-7087

**국제공항공사
사계절 스케이트장**
공항 속 레저 공간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여주인공 이수가 걷던 '이수거리'

영화 속 환상이 된, 오래된 철강공장

때론 새것보다 오래된 것이 더 아름답다. 시간의 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개항기와 산업화의 중심에 있던 인천에는 그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잊혀가던 근현대 건축물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부파인더 너머 아름다운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던 도시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용필름

잘나가는 비주얼 아티스트의 선택

“이 의자는 사용한 목재가 조금 특별해요. 오래되거나 버려진 선박으로 만들었거든요. 참 신기하죠? 원래 나무였다가, 배였다가, 이젠 또 이렇게 의자였다가.” 앤터크 가구점에서 일하는 '이수(한효주)'가 손님으로 처음 만난 '우진과 나눈 첫 대화다. 두근두근, 그렇게 시작한 두 사람의 인연. 하지만 우진은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판타지 로맨스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백감독(백종열)은 CF와 뮤직비디오, 영화 타이틀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감각적인 영상을 연출해 온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스토리텔러다. 그런 그가 감독 데뷔작 <뷰티 인사이드>의 메인 촬영지로 선택한 곳은, 바로 인천에 있는 '카페발로(Cafe Valor)'다.

부평구 십정동 공장 지대에 자리 잡은 카페발로는 철강공장에서 카페, 가구점, 스튜디오로 탈바꿈한 도시 재생 복합문화공간이다.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인스파이어링 로케이션'으로 소개하기도 한 이곳은 건물 자체가 살아 있는 예술작품이다. 여주인공이 일하는 가구점이자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이끄

는 장소로 영화 속 영상미를 한껏 끌어올린다. 감각적인 크리에이티브인 백감독은 거친 공장지대에 자신만의 감성을 녹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공간 비주얼을 완성했다.

문 닫은 철강공장의 가치를 보다

카페발로는 제조업 공장들이 모여 있는 부평구 십정동 후미진 골목 안에 있다. 원래는 가동을 멈추고 먼지 자욱이 쌓여가던 철강공장이었다. 40여 년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이 일대 주민을 먹여 살리다, 제 기능을 잃고 몇 년째 버려진 공간. 건설자재 및 가구 수입업체인 SG산업의 김연표(38) 대표가 이곳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됐다. 그는 낡고 오래된 프레임을 찾아 인천에 있는 공장 수 십 곳을 찾아다녔다. “이 일대에서 가장 낡고 오래되어서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여서 놀랐습니다. 낡것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 새로운 공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카페발로를 지역 젊은 작가들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실제로 카페 안에는 인천의 젊은 디자인 집단이 월 5만원의 임대료 아닌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있다. 지역 작가들이 힘을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메인 촬영지, 카페발로



카페발로는 부평구 십정동 공장 지대 내 '놀라운 반전'이다.



모아 막강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빈티지 테마파크'가 그가 멀리 내다보는 미래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지역의 발전을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은 방치된 수력 발전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킨 영국의 와핑 프로젝트(The Wapping Project)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인천에서 한국판 와핑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낡고 오래될수록, 아름다운

그는 낡고 오래된 것을 최대한 살려 폐허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공장 내 대부분의 구조물은 공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4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그대로다. 3.5톤급 철강 재료를 옮기는 호이스트 크레인도 아직 존재한다. 그 육중한 몸체가 금방이라도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움직일 것만 같다.

카페 안은 톤 다운된 컬러와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거칠고 투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그 안에 감도는 기운은 놀랍도록 따스하고 친밀하다. 기나긴 시간이 빚어낸 빈티지 가구와 소품들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아름다우면서도 조화를 이룬다. 백감독 역시 이곳을 “얼핏 보면 가구들이 마구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간으로 영화에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스토리는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한다. 이수와 우진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가구는 실제로 2004년 인도네시아를 덮친 지진해일에 휩쓸려 온 배로 만든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이 매만지던 나무의 감촉을 느끼기 위해, 심지어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도 발걸음을 한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품은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이용 포인트 카페발로는 모델, 연예인 등도 촬영을 위해 즐겨 찾는 핫 플레이스다. 스튜디오는 모두 여덟 테마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한 공간의 대여로는 시간당 5만 원, 3천여 가지에 이르는 소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페안, 이수가 건넌 '이수거리'에 가면 나도 영화속 주인공이 된다.

위치 부평구 백범로 578번 길 52(십정동)

가는 길 주차 공간이 좁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동암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나온다.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 577-3214, www.valorbysg.com



중구 개항장에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도 <뷰티 인사이드>를 촬영했다. 이곳 역시 110여 년 전 지어진 창고와 공장을 탈바꿈시킨 복합문화공간으로, 영화 속에서 이수가 일하는 가구점의 외관으로 등장한다.



2016 달라지는 시민생활



인천 과학 영재학교
송도에 개교

전국에서 자원이 가능하다!
인재들이여 오라!
송도로...!!!

미래의 대한민국 리더로 우뚝!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FREE

꿈과 끼를 찾도록 토론
생활 등 학교수업형
개선

창의력을 기르고
진로탐색, 직업탐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천 전체 중학교
134개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여!
인천콘텐츠 코리아랩으로
가자!

이곳에서는 아이디어 생성, 개발, 융합과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며

저희의 멘토링을
받아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과 창업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여성, 보육, 가족 부문
무인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별도로 신청을 해야
있습니다

인천시민이면 24시간 이용가능!

택배 신청 → 택배 보관 → 택배 도착 → 본인 인증 → 수령

간단

우리애는 어디로
가라고! 앙~

이런 불편을 새해부터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신설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 신설

똑딱 똑딱

다음은 사회복지!
자활의 꿈을 키워 보세요

본인의 저축액 만큼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내일
기쁨
통장

대상은
자활근로 사업단
3개월 이상
참여자

일자리 창출!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3년간 창업, 성장기업 육성

스마트 물류 벤처 창업
신사업 아이템, 스타트업 기업
중소 벤처기업
물류선진화 등...



수인선·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2016년 시민 생활 더 편해져요

2016년이 시작됐다. 새뜻, 큰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도 잘 달려보겠다는 다짐을 한다. 올해도 우리시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워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친다. '2016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시민과 가장 밀접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교육·문화·예술

대학생 멘토링, 지역 학생 학습 지원

인천 관내 대학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자 시작한 대학생 지식나눔 봉사활동인 멘토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대학은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 재능대, 인하공전, 경인여대, 청운대 등이다. 멘토 수는 1천명에서 올해 1천1백 명으로 늘리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지도, 진로탐색,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송도에 개교



2016년 3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에 개교한다. 전국에서 지원 가능하며 5개 학급 83명이다. 전형방법은 1차 학생기록물 평가, 2단계 영재성 심사, 3단계 융합역량 다면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했다. 지원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며 인문예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창작자의 보물창고,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아이디어가 충만하다면 인천콘텐츠코리아랩으로 가자. 이곳에서는 다양한 강좌와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고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과 창업을 할 수 있다. 강좌와 시설 사용은 무료이며 향후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개설강좌는 아이디어 생성, 개발, 융합과 관련된 수업 등을 진행한다.



여성·보육·가족

무인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 시행

우리시는 여성, 아동 등의 이용자가 별도 신청 없이 언제나 편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무인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택배는 24시간 이용가능하고 택배 신청→택배 보관→택배 도착→본인 인증→물품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늘어난다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이 인기가 많다. 입학하려면 몇 달을 대기하거나 아침에 줄을 서서 등록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시는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보급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사회복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확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급여액은 중위소득의 29%까지 확대하고 최대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인상했다. 급여 대상도 28%에서 29%로 조정하고 중위소득 21만원에서 219만원으로 지원을 늘렸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 늘어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의료비를 보장하고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되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이다. 생계급여 대상자 중 장애

인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28→29%,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40%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은 4인가구 월 219만원까지가 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운영

인천은 물류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한·중 교류 협력의 전초기지가 된다. 올해부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3년간 창업·성장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스마트물류 벤처창업 지원 30개, 스파크랩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항공·운송·부품 분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업정밀진단 300개사, 종합클리닉 100건, 신사업아이템 50건도 발굴 육성한다.



생활·민원·환경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제도 전환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아파트 단지별로 시행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지정제도'가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제도'로 전환한다. 대상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여 우수 아파트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확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무거운 대·중형 폐가전제품은 가정을 방문해 수거하고 가벼운 소형 폐가전은 거주 주민센터에서 수거해 처리한다. 확대된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대상은 전자레인지, 구형오디오세트, PC세트이고 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을 동시에 배출해야 수거된다. 소형 폐가전 제품의 무상수거 대상은 청소기, 선풍

기 등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직접 갖다 놓아야 한다.

대기오염 경보제 '기준 변경'

금년부터는 현행 대기질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기준을 24시간 이동평균 농도를 삭제하고, 시간평균 농도로 단일화 한다. 이는 기존 발령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황사 특보와 관계없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유지하여 고농도 발생 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황사특보 대체규정을 삭제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생활민원 자치구 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옥외광고물, 하수도, 공원, 녹지 도로 등 5개 생활민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3개 자치구로 이관한다.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 영종지구는 중구, 청라국제도시는 서구로 이관된다.



교통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인천시민의 발이 될 도시철도 2호선이 올 7월 개통된다. 2호선은 검단, 검암 등 서북부지역과 남동구 인천대공원 일원의 기존 도심을 잇는다. 구간은 검단 유류동과 운연동 사이다. 2호선 노선은 왕길역→검단사거리역→마전역→완정역→독정역→검암역→검바위역→아시아드경기장역→서구청역→가정역→가정중앙시장역→석남역→서부여성회관역→인천가좌역→가재울역→주안국가산단역→주

안역→시민공원역→석바위시장역→인천시청역→석천사거리역→모래내시장역→만수역→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 27개 정거장이다.

수인선(송도~인천 구간) 복선전철 개통

수인선은 2012년 6월 오이도~송도 구간 13.1km가 개통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송도~인천 구간이 다시 연결된다. 새로 신설되는 역으로는 ▲인하대역 ▲송의역 ▲신포역 ▲인천역이다.



건축·주택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올해부터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공동체 생활 활성화와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연중 열리며 인천시 관내 공동주택에서 연주한다. 공연은 시립예술단 4개 단체인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이 합동 공연한다.



세정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간 연장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으로 납부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 30분으로 1시간 30분 연장한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사이트 'etax.incheon.go.kr',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서비스(www.giro.or.kr)다.

*'2016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행정예행정부자료실→주요시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힘찬 뱃고동, 늘 깨어있는 바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무수히 쌓인 시간의 층을 돌아보며 오늘을 마주하고 내일을 그려본다. 인천시 기록관에서 오랜 시간 소중히 그려모아 온 역사의 기록을 하나둘 꺼내 선보인다. 잠들어 있던 사진 한 장이 목은 먼지를 털고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역사는 생명력을 얻는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뱃고동 소리 힘차게 울리며 더 큰 바다로 향해하는 연안부두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자료제공 및 협조 인천시 기록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10월 12일, 연안부두로 가는 길을 포착하고 있다.



1973년 10월 12일, 연안부두 전경

1973년, 항구의 시작

연안부두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일대를 일컫는다. 여객선의 출발지인 이곳에서는 누구나 설렘을 품은 여행자의 마음이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쪽 바다 가까운 섬부터 서해 5도, 더 멀리 중국까지 닿을 수 있다. 연안부두는 1960년대 후반에 인천 내항을 개발하면서 나온 흙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했다. 연안부두가 공사를 마치고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1973년 5월 1일이다. 그다음 해에 인천역 뒤편에 있던 객선부두와 어선부두가 연안부두로 이전했고, 제빙공장과 소금업체 등도 이곳으로 터를 옮겼다.



그리고 오늘

연안부두에서는 배만 타지 않는다. 가까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남항부두, 해수탕거리, 종합어시장 등이 있어 어느 때고 바다를 한껏 누릴 수 있다. 선착장 옆에 있는 해양광장은 쉼터로 잘 조성돼 있어, 아무 데나 걸터앉아 '바다와 나'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광장 한편에는 카페와 전망대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있는 높다란 건물이 있다. 꼭대기 층 전망대에 오르면 연안부두 일대와 그 너머 바다 끝까지 시야가 닿는다. 연안부두는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전역에서 사랑받는 명소가 됐다.



1975년 12월 20일 인천종합어시장 준공식(왼쪽)과 현재의 모습



1975년, 어시장 불 밝히다

1975년 12월 20일 인천종합어시장이 연안부두에 문을 열었다. 1974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수도권 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합어시장인 이곳의 역사는 1902년 중구 신포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종합어시장은 1931년 중구 북성동 해안가 매립지로 이전했다가, 1975년 이곳 중구 향동으로 터를 옮겨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재래 어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짠 내 가득 풍기는 시장은 살아 있다. 뽀뽀하게 자리 잡은 어물전에선 갓 잡아 올린 생명들이 파닥파닥 살아 숨 쉰다. 500여 개에 이르는 가게는 미로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잡한 통로를 따라서 물건 그득 실은 손수레가 바빠 오간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엔 늘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넘친다.



1980년대, 섬으로 가는 길

연안부두는 바다 건너 또 다른 미지의 세상을 꿈꾸게 한다. 사람들이 섬으로 가기 위해 연안부두로 몰려든 건 1980년대에 들어서다. 휴가철이면 배를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재 서해 항로를 운항하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는 여행객은 연 106만 명에 이른다.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으로 가는 10개 항로를 운항하며 해마다 109만 명이 이용한다. 제1·2 국제여객터미널을 갖추고 있으며,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개장했다.



1981년 연안부두에서 울왕리로 가는 여객선을 타려는 피서객들(사진 박근원)



그리고 내일, 더 큰 바다로

인천 땅끝 연안 부둣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매서운 겨울바람 끝에 진한 짠 내가 묻어난다. 뱃고동 소리가 힘차게 귓가에 울려 퍼진다. 사람을 그리고 꿈을 실은 배들이 출항과 입항을 알리고 있다. 오는 2016년 연안부두에 15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를 비롯한 8개 선석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새롭게 조성한다. 닻을 올려라. 늘 도전했던 지난 시간처럼, 더 큰 세상을 향한 위대한 항해가 다시 시작되었다.

세상 어디에도 인천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세계의 하늘 아래 긴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땅, 가깝고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168개의 섬. 하지만 무엇보다 인천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당신입니다.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나 구분 없이 하나 되는, '우리는 인천'.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하고 내일을 그려 봅니다. 그 첫 번째로, 70년대 바다를 매워 만든 작은 인천 '토지금고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용현동보다 '토지금고'라는 이름이 정겨운 동네

바다에서 땅으로, 70년대 송도 같은 마을 "여기 사람들은 용현 5동은 몰라도 토지금고 마을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요." 남구에는 '토지금고'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다. 용현 2동과 5동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이 지역 사람들끼리는 다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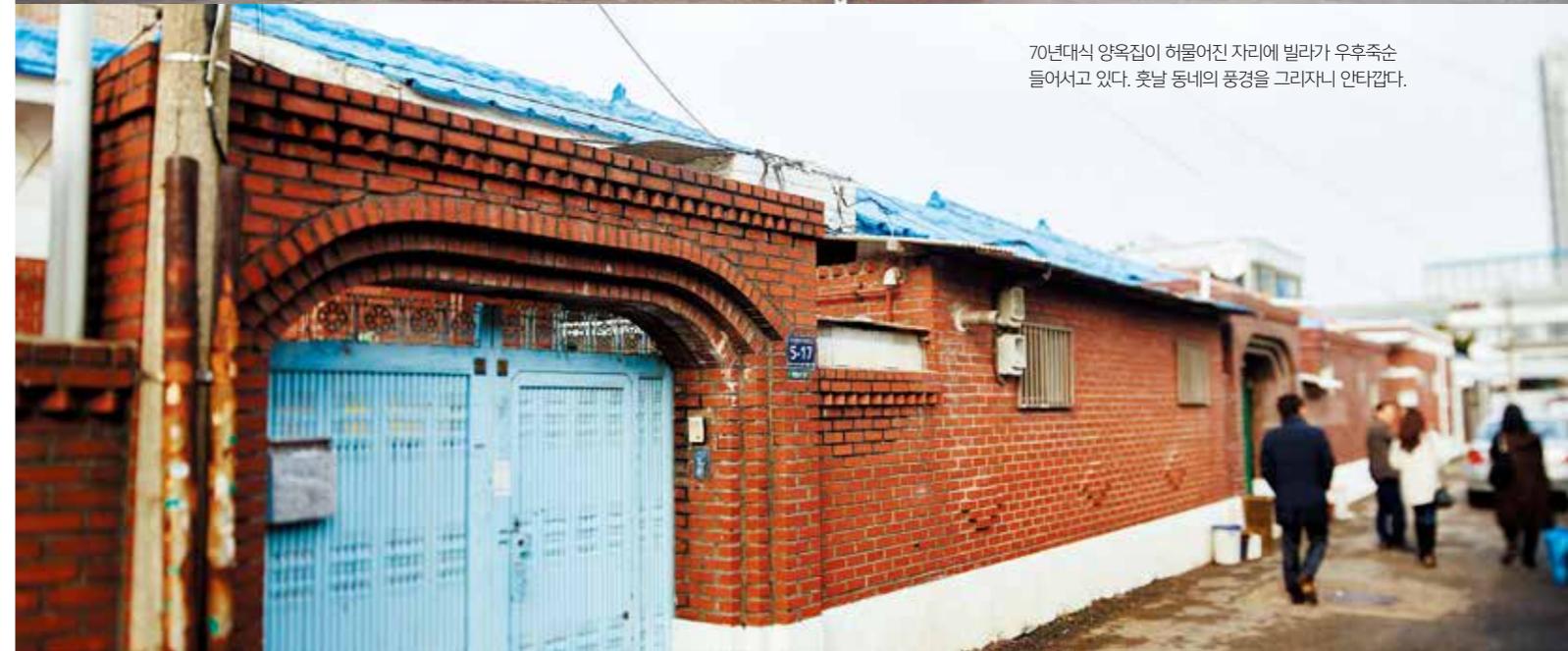
마을은 원래 낮은 언덕과 바다로 이뤄져 있었다. '용마루' 언덕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과수원과 별장이 있었다. 바다 가운데 있던 낙섬은 원숭이를 닮아 원도(猿島)라고 부르기도 했다. 1929년에 언덕과 바다 사이에 염전이 들어섰다가 66년에 문을 닫고, 이후 75년 '토지금고(현 LH 공사)'가 죽어 있던 땅을 택지로 개발했다. 오늘로 말하면 송도국제도시 같은 도시가 70년대에 이미 있던 셈이다. 반듯하게 지은 양옥집과 신식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자리를 잡았다. 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왔다. 토박이보다 외지인 수가 늘면서 이 동네는 '작은 인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번쩍번쩍한 이 신흥 주거지역에 살던 주민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1980년에 이사 왔어. 당시 이 집 가격이 1천800만 원이었으니까 꽤 비쌌지. 화장실도 수세식이고 부엌도 입식이라서 아주 편했어. 동네에 죄다 부자들만 살았지. 이제는 다 지난 이야기고, 지금은 함께 살던 이웃 가운데 한 삼분의 일이 남았나? 진작 여기서 나갔어야 부자가 됐을 텐데." 김동주(65) 할머니는 용현 5동 용현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부영주택가에 35년째 살고 있다. 여기 눌러앉아서 부자가 가난해졌다고 말은 하지만, 정든 동네를 떠날 생각이 없다.

용현초등학교 앞 부영주택가. 집집마다 새겨진 동그라미 무늬가 같은 건설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 큐레이터는 모두 마을 주민이다. 좌로부터 박상윤(49), 김승란(67), 이민재(50), 도경남(67), 최형신(49) 씨



70년대식 양옥집이 허물어진 자리에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훗날 동네의 풍경을 그리자니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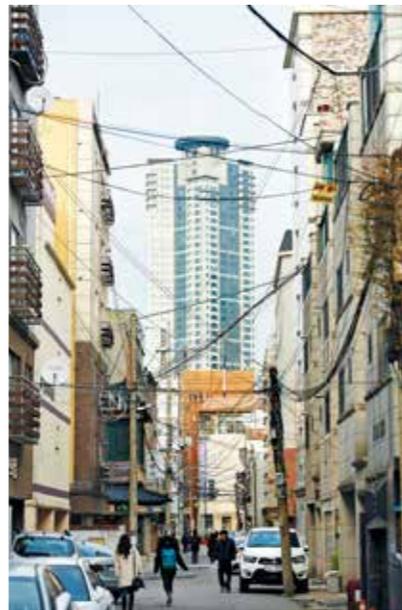


용정공원 가는 언덕 위 집에서 50년을 살아온 김학분(89), 홍순자(66) 모녀

가로막힌 도로, 변화의 바람을 기다리며

나지막한 주택가 앞에는 높다란 막이 쳐져 있다. 개통한 지 47년 된 경인고속도로다. 그 너머로는 아파트 숲이 뻗뻗이 들어서 있다. 용현 5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박상운(49) 부위원장은 이 도로를 '인천의 삼팔선'이라고 말한다. "경인고속도로가 주민 간의 왕래를 막고 지역을 단절시켰어요. 이 벽을 걷어버리면 동네가 크게 발전할 거예요." 오는 2017년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 구간에 대한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된다. 같은 해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하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두 동강이 났던 지역이 하나로 이어진다. 개발의 바람 속에 나지막이 엮드려 있는 이 동네에 변화의 물결이 일 날이 멀지 않았다.

주택가 가까운 곳에는 용정공원이 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 저유소를 경비하는 군부대가 머물던 곳으로, 4년 전 주민을 위한 심터로 탈바꿈했다. 공원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 모아 꾸려가는 작은 박물관이



토지 금고는 살아있는 주택 박물관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집과 70년대 국민주택, 초창기 저층 아파트와 초고층 아파트가 공존한다. 2011년 세워진 '용현 엑슬루타워'는 당시 전국 아파트 가운데 최고층을 기록했다.



마을 아이들이 새겨 놓은 희망의 메시지



동감내기 마을 친구 김승란, 도경남(67) 할머니

있다. 박물관으로 가는 길, 언덕배기 귀퉁이 집에 사는 한 모녀를 만났다. 어머니 김학분 씨는 89세, 딸 홍순자 씨는 66세. 사이좋게 나이 들어가는 이 모녀는, 옆집 담에 기대고 선 이 낡고 오래된 집에서 50여 년을 살았다. 담벼락 한편에 어젯밤 연탄을 태워 겨울을 난 흔적이 남아 있다. "살면서 손질은 했지만, 처음 지었던 그대로야. 동네 사람들 다 떠나고, 이제 우리만 남았어." "아이고, 우리 아들딸들. 찾아줘서 고맙다고 마워." 아는 이 하나둘 떠나보내고 덩그러니 남겨진 할머니는, 사람이 그림다. 깊게 주름진 얼굴에서 열게 새어 나오는 미소가 쓸쓸하다.

서울 소녀, 인천 할머니로 나이 들다

공원 언덕으로 오르면 파란색 컨테이너 건물 두 채가 시야에 들어온다. '토지 금고 마을박물관'이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을박물관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소통하는 뜻에서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먼 훗날 우리 동네를 자랑스럽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박물관장님으로 통하는 이민재(50) 씨는 25년 전 토지 금고 시장이 있는 주택가로 시집왔



동네 사랑방 주인 같은 조금희(67) 상인 회장



백백(66) 할아버지는 토지금고 시장 앞에서 22년간 구두를 닦아왔다. 원래도 유명인사이지만, 최근 마을 홍보 동영상에 출연하면서 인사를 더 받고 있다.



하나로쇼핑센터 최고 미남 이정구 약사

다.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는 조상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아 온 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박물관에는 언덕과 섬이 하나로 메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기까지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사진은 장롱 속 낡은 앨범에서 꺼낸 빛바랜 사진 속에도 담겨 있다. “여기가 지금은 사라진 낙섬이에요. 내 손 꼭 잡은 이 사람이 함께 대성목재에 다니던 내 단짝 최 직장 딸.” 사진 속 주인공 김승란(67) 할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애관극장 옆 고려가구점에서 사업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사를 왔다. 뽀얀 얼굴의 새침데기 서울 소녀는 사진 속 어여쁜 아가씨에서 어느덧 칠순을 앞둔 할머니가 됐다. 대성목재를 다니며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키우며 인천 사람으로 늙어갔다. “용현동은 제2의 고향이에요. 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정이 많아.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 하늘나라 가야죠.”

지나온 시간보다 더 나은 내일
언덕 아래 바다가 물결치던 동네. 먼 옛날 배를 타고 건너던 이곳을 지금은 두뼉두뼉 걸어서 간다. 용현 5

동 미래로마트 옆에는 ‘낙섬터 원도사지’ 표석이 있다. 표석은 택지를 개발하기 전인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수영과 낚시를 즐겼으며, 조선시대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전한다. 가게 안에는 암벽이 온전히 남아 있다.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바위를 보면 이곳이 바닷가였다는 사실이 살갓으로 전해져온다. “아파트고 집이고, 이 주변에는 이런 바위가 곳곳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라도 하려면 영 불편해.” 처음 보는 사람은 마냥 신기한데, 동네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도 없다. 하나로쇼핑센터에도 토지금고 마을 사람들의 굴곡진 삶이 흐른다. 1984년 처음 쇼핑센터가 문을 열을 때만 해도 미래는 장밋빛이었다. 구월동 희망쇼핑센터에 이은 인천의 두 번째 대형 쇼핑몰. 하지만 인근 버스터미널이 관교동으로 이전하고 송도유원지 개발이 주춤하면서 이곳의 시간도 멈추어버렸다. 쇼핑몰에서 하나뿐인 약국을 운영하는 이정구 약사는 동네 최고 미남으로 통한다. 하지만 반듯한 이목구비와 달리 얼굴빛이 밝지만은 않다.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처음에

는 130여 개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지요. 나도 3, 4년 후쯤 정리할 생각이예요.” 딱딱한 현실에서도 인심은 여전히 후박하다. 극구 사양하는데도 낯선 방문객의 두 손에 딱끈히 데운 피로해소제를 쥐여준다. 쇼핑센터에서 25년을 장사해 온 조금희(67) 상인회장은 늘 밝고 유쾌하다. “잘나갈 때는 한 달에 천만 원도 넘게 벌었지. 가게를 세 개 터서 옷을 팔았으니까. 지금은 먹고살 정도. 그래도 우리 가게는 여전히 사랑받아. 물건은 안 사도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다가 가고들 하지. 여기가 우리 동네 사랑방이야.” 조 회장은 7년 전 송도국제도시로 이사 갔다가 결국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정을 끊지 못해서다.

한겨울의 해는 짧다. 어느덧 세상이 검기울고 드문드문 하던 인적마저 푹 끊겨 간다. 하지만 낡고 거대한 쇼핑센터 안의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고 손님을 기다린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70년대 부자 동네 토지금고 마을 사람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낙섬터 원도사지’ 표석이 있는 미래로 마트. 건물 안에 남아 있는 암벽이 이곳이 바닷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올해로 서른 두 살 먹은, 인천의 두 번째 대형 쇼핑몰



◀ 인천여성 졸업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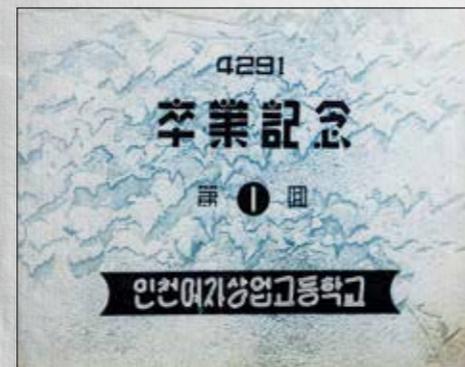
신사^{神社} 터에 세운 배움터

졸업 앨범에는 학교만 있지 않다. 인천도 있다. 졸업 기념 촬영 때 학교 주변 동네의 풍광이 종종 카메라에 잡혔다. 교외(校外)에서의 포즈나 행사를 담은 사진은 더없이 귀한 인천의 과거다. 지역 내 고교 앨범에서 수집한 사진을 통해 인천의 6, 70년대를 반추해 본다. 그 첫 번째로 인천여상의 앨범을 들춰 보았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재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 신생동 24(인중로 146). 현재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는 이 땅은 곡절이 참 많았던 곳이다. 이 땅은 품고 있었던 '과거'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광복이 되자 동네 이름을 '신생동(新生洞)'으로 바꿨다. 일본 신사에서 피란민촌, 그리고 미군 고사포 부대까지, 다시 태어나야 할 만큼 절박했던 이름이다.

인천이 개항하기 이전 신생동은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船倉里)의 일부지역이었다. 개항장 주변 지역이라 본래 아무 시설도 없던 빈 땅이었다. 이곳으로 산사람보다 '망'자들이 먼저 들어왔다. 1887년부터 일본인 공동묘지로 사용되다가 191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일본인촌이 되었다.

현재의 인천여성 자리에는 인천신사(仁川神社)가 있었다. 당시 인천에 살고 있던 1천 600여 명의 일본인들은 기부금을 모아 신사 건립에 나섰다. 그들이 명당을 찾고 찾은 끝에 낙점한 곳이 바로 지금의 인천여성 자리다. 학교 남쪽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낭떠러지로, 바다가 훤히 보여 풍광이 좋은 곳이었다. 일본인들은 그곳에 1890년 6월 신사를 건립했다.

대신궁 건축공사가 낙성되면서 면모를 갖춘 인천신사는 이후 지속적인 증축 공사를 하며 규모를 넓혔다. 일본인 신궁(神宮)이 들어서면서 동네 이름이 궁정(宮町)이 되었

다. 그곳에 일본인 전용 공원인 동공원도 조성됐다. 광복이 되자 신사는 조선인들 분노의 첫 타깃이 되었다. 방화와 파괴가 잇따르며 시설 대부분이 사라졌다. 신궁 등 건축물은 모두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학교 안에는 신사의 잔재가 남아 있다. 정문에 들어서면 석축과 석조 난간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교정 곳곳에서 당시의 석주, 석담도 만날 수 있다.

1945년 4월 12일 개교한 인천여상은 여러 번 이삿짐을 싸야 했다. 먼저 인천공립상업학교(율목동 옛 인천고) 일부 교사를 빌려 개교한 후 광복 후 송림초교 교사에서 잠시 셋방살이를 했고 46년부터 3년간 만석동 풍곡제분공장에서 공부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공장 안에 함판으로 칸막이를 쳐서 교실을 만들었다. 공장 바로 옆에는 미군 흑인 병사들의 막사가 있어 학생과 교사들은 항상 긴장감에 싸여 있었다.

49년 인천신사 터로 이전함으로써 신생동과 처음 인연을 맺는다. 6.25 전쟁 때 뿔뿔이 흩어졌다가 신사 터로 다시 돌아왔으나 피란민들이 움집을 짓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언덕 정상에는 미군 고사포 부대 막사가 자리 잡았고 학교 옆에는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들이 진을 쳤다. 56년 고사포 부대가 이동함으로써 비로소 학교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ment (졸업)이란 어휘는 시작이라는 뜻
다시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생
막 받을 틀여 품으려는 뜻일 게다
추억을 만들기 위해 힘 있게 첫 발을
여 잘 가오! 디디자,
는 길에 북 많이 있어지라
는 모아 고요히 받여
/ 1958. 12. 24.

편집위원 일동

강남 시강 순제

팔판루와 신사 종무소(1959년도 앨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천신사 안에는 수명루와 명월루라는 고급 요정이 있었다. 특히 수명루는 '제일루'라 불릴 정도로 인천 최고의 요정이었다. 맛있는 술과 음식, 아름다운 여자들, 그리고 청아한 정자와 눈부신 전망을 자랑했다. 수명루는 청일전쟁이 끝난 후 팔판루(八坂樓)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흔히 '팔팔로'라고 불렀다. 초대 조선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도 인천에 올 때마다 즐겨 찾았다고 한다. 후에 요정은 모두 폐쇄되었고 팔판루 일부는 신사 종무소로 사용되었다. 광복 후 적산이 된 종무소는 한동안 미군 방첩대가 들어섰고 49년 5월 임시 교사(校舍)로 사용했다. 6.25 전쟁 후에는 72가구 300여 명의 피란민들이 무단 입주했다. 피난민들은 53년 10월에 학교에 자리를 내주었다. 인천여상은 이곳을 교장실, 사무실, 숙직실로 사용했다. 66년 신사 종무소를 헐어냄으로써 인천 신사 관련 건물은 모두 사라졌다.



인천 문화의 요람, 강당(1960)

이 학교의 강당은 인천 '예술의 전당'이었다. 1958년 미군의 원조자재에 힘입어 당시 보기 드물게 음향과 조명시설을 갖췄다. 인천에 특별한 문화 공간이 없던 시절, 이 강당에서 각종 문화 행사와 실내경기 등이 자주 열렸다. KBS교향악단 연주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보풍의 연주 등을 비롯해 오제도 검사의 시국 강연회, 전국주산대회, 전국체전 레슬링대회 등이 열렸다. 심지어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대회도 열려 시민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사진은 1960년 강당에서 당시 인기 만화였던 '고바우' 영화를 상영하는 모습.



시보 사이렌 망루와 홍예문 철책(1959)

시계가 거의 없던 시절, 대포가 시간을 알렸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포를 쏜 '오포(午砲)'는 인천에서 시작됐다. 1906년 2월 9일부터 인천관측소 아래 응봉산 중턱에 대포를 설치해 매일 정오(正午)에 맞춰 오포를 발사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산을 오포산(午砲山)이라고 불렀다. 1925년 오포제는 폐지되었고 대신 1931년부터 홍예문 위에 세워진 소방대 망루에서 시보(時報) 사이렌이 울렸다. 이 사이렌은 1960년대 초까지 운영했다.



높이 13m의 홍예문은 한때 인천의 자살 터였다. 7,80년대까지만 해도 시내에서 이만한 높이의 개방된 건축물이 별로 없었다. 이게 문제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몸을 던졌다. 사고가 이어지자 이후 높다란 철책이 둘러쳐졌다.



소방소 망루(1961)

학생들이 포즈를 취한 뒤편으로 삐죽 솟은 시설이 자주 눈에 띈다. 높다란 소방소 망루이다. 이 망루는 70년대 초까지 사진 배경으로 등장한다. 아직 전화기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절, 소방대원은 24시간 높게 솟은 망루에 올라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검은 연기를 발견해 서둘러 출동해야 했다.

1896년 인천 최초의 근대식 소방대인 인천소방조(仁川消防組)가 신생동에 발족했다. 1919년 12월 12일 인천소방조 청사를 지금의 인천여성 정문 자리에 신축했다. 앨범에 등장하는 이 망루는 신생동소방파출소 소관이었다. 98년 1월 8일 신생동소방소는 폐소되었고 그해 8월 26일 건물마저 헐리고 만다. 소방망루는 훨씬 전에 먼저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도화동 국군묘지(1962)

인천 도화동에는 국군묘지가 있었다. 1968년까지 세화초교 운동장과 옛 선인체육관 부지 아래 6.25 전쟁 때 전사한 국군 379위(혹은 358위)가 안장되었다. 매년 6월 6일이면 이곳에서 정부 차원의 현충일 추념행사를 거행했다. 사진은 현충일을 맞아 학생들이 도화동 국군묘지를 찾은 모습이다. 도화동 국군묘지는 1968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하면서 폐쇄했다.



자매도시 장병 위문공연(1963)

현재 인천시의 자매결연도시는 20개, 우호결연도시는 14개다. 첫 번째 자매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 양 도시는 1961년 12월 18일 정식으로 자매결연서에 서명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시는 이듬해 5월 버뱅크 출신 주한미군 7명을 초청해 리셉션을 베풀었고 7월 미국 LA 인근 롱비치에서 열린 세계미인선발대회에 참가한 미스코리아 손양자 편에 인천시장의 선물을 전달하는 등 친선교류에 힘썼다. 사진은 1963년 인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 버뱅크시 출신 장병을 학교로 초청해 위문 공연을 한 후의 기념사진이다.

취업 최고 스펙, 주산(1963)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판은 필수 사무용품이었다. 1950년대 상업학교에서 주산은 의무 교육이었고 60년대 초·중학교에서는 특기 교육과정이 되었다. 한창 때는 전국 10여 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주판이 한 해에 10만 개씩 팔리기도 했다. 골목마다 주산학원이 들어섰고 아이들은 한글과 구구단을 깨치기 전에 조기교육으로 주산을 배웠다. 주산자격증은 확실한 '취업보증서'였다. 인천여성 강당은 주산대회 단골 장소였다. 전국주산대회와 기능시험 등이 이곳에서 자주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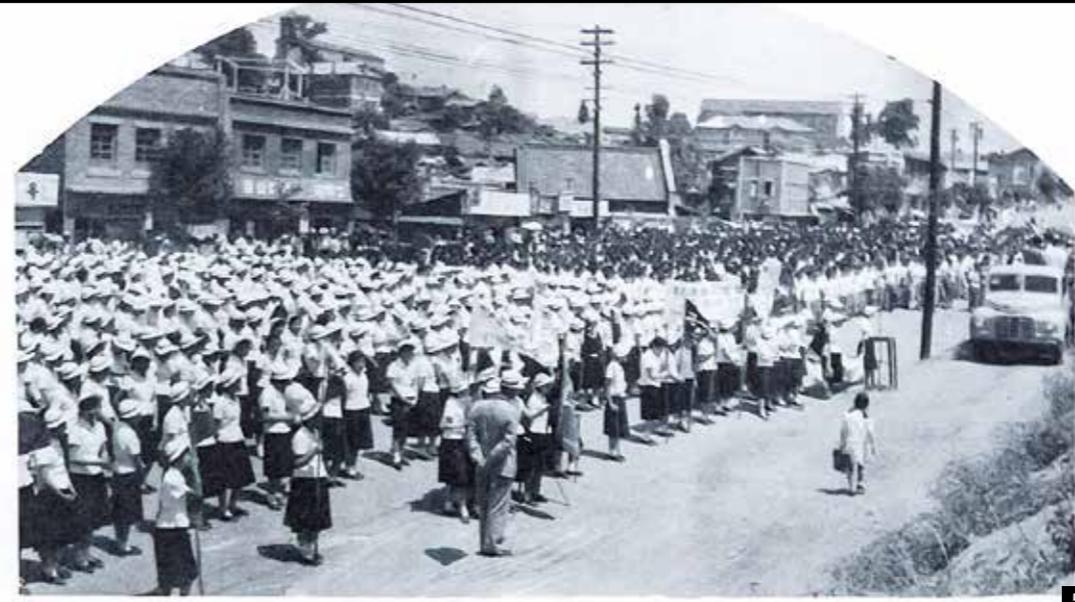
연오정과 석정루(1964)

1964년 멋진 앨범 촬영을 위해 여고생들은 교정을 벗어나 자유공원으로 향했다. 자유공원은 당시 인천을 넘어 한국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였다. 여고생들은 육각형 단층 정자 '연오정(然吾亭)'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이 정자는 송현동 100번지에 살던 조길 씨가 그의 부친인 독립운동가 조훈 선생이 생존 시 당부한 뜻을 받들어 1960년 8월 350만원의 공사비로 건축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비단바람을 맞으며 장구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하며 풍류를 자주 즐겼다. 여고생들 뒤편으로 공사 중인 건축물이 희미하게 보인다. 2층 누각 석정루(石汀樓)다. 목재업과 조선소로 큰돈을 벌었던 이후선 시장이 30여 년간 자유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지켜온 데 대한 보은으로 석정루를 짓는 중이다. 출생지가 월미도였던 그는 고향 월미도가 보이는 공원 서쪽 언덕바지를 누각의 위치로 정했다. 1966년 완공해 인천시에 기증했다. 당대 이름을 떨친 서예가 박세림 선생이 현판 글씨를 썼다.





1
2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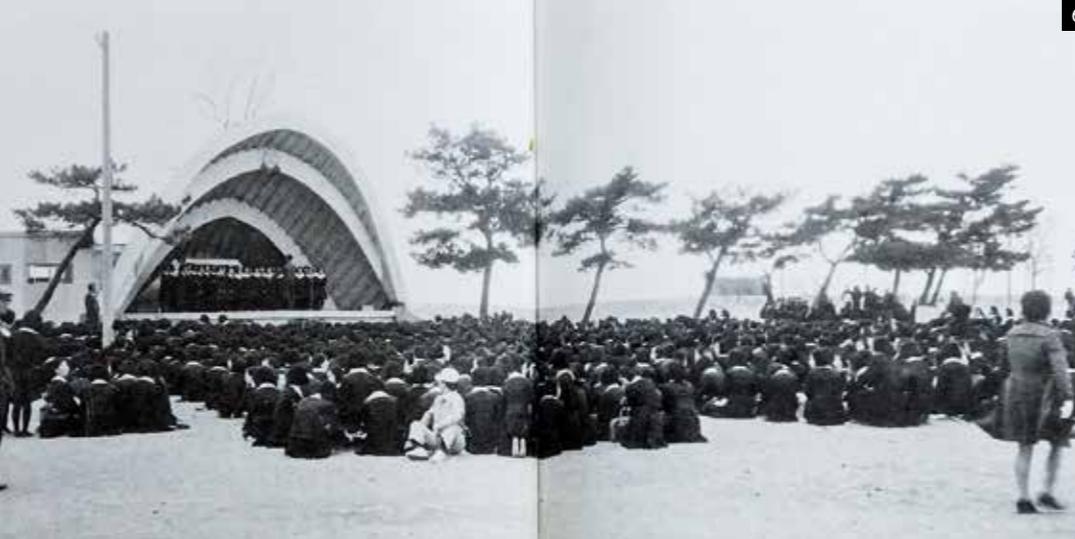
5
6



4



3



1. 60년대 초반 남파 간첩들은 제집 드나들 듯 한국에서 활동했다. 62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간첩 규탄대회.
2. 인천여상의 합창부는 73년 전국 콩쿠르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고교 합창계의 강자였다. 이것은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선생이 이 학교 음악교사로 한동안 재직했기에 가능했다. 그는 인천여상 교가도 작곡했다(1959).
3. 인천여상과 바다는 아주 가까웠다. 교실에서 보면 도크(1부두)는 코앞이다(1959).
4. 얼마 전 동방극장 건물이 완전히 사라져 주차장이 되었다. 외화개봉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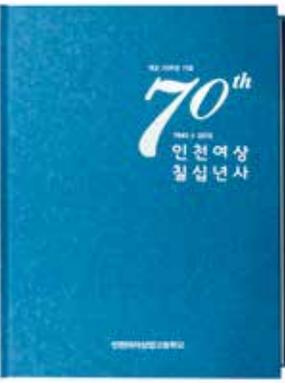
- 으로 유명했던 동방극장의 귀한 사진이 앨범 구석에 실려 있다(1959).
5. 재일교포들은 북한의 꿈에 빠져 북송선을 많이 탔다. 지금의 답동사거리에서 열린 북송 반대 규탄대회에 참가한 인천여상(1960).
6. 송도유원지는 소풍 단골 장소였다. 도시락을 까먹은 후 야외음악당에 모여 반별 장기 자랑을 했다. 이날 예상 못한 '스타'가 꼭 탄생하곤 했다(1972).
7. 광복 직전 어느 일본 여인이 신사에 석등을 기증했다. 광복 후 학교가 들어서면서 흩어진 석등을 모아 재조립해 학교 조경에 사용했다(1962).

1945~2015, 그 칠십 년 이야기

인천여상은 해방둥이다. 1945년 4월 12일 한국인 25명, 일본인 25명 총 50명으로 개교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복을 맞음으로써 절반을 차지한 일본인 학생 25명이 귀국하였고 학교는 일시 휴교에 들어갔다. 이후 학교를 재정비하고 공부할 만하니까 이번엔 전쟁이 터졌다. 뿔뿔이 흩어진 학생들을 모아 수업을 재개하던 중 학제가 변경돼 1951년 일부 학생(6년제, 4년제)이 인천여자상업중학교, 나머지(3년제)는 월미여중의 첫 졸업생으로 배출되었다.

술한 우여곡절 끝에 1955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3년제) 135명이 첫 입학생으로 들어왔다. 58년 3월 112명의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된 이래 지난해 2월까지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동안 경기도(인천 포함) 내 최고 명문 상업학교로서 입지를 굳히며 매년 서울, 경기 등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이 지원해왔다.

이러한 술한 이야기들이 '인천여상 칠십년사'의 페이지마다 담겨 있다. 이 책은 이 학교 국어교사인 최금희 편찬위원이 인천여상 40년사, 동창회 자료, 지역 신문, 지역향토사 등을 1년여 동안 조사, 수집해 엮었다. 최 교사의 어머니는 인천여상 3회 졸업생이다. 그 운명적 인연으로 더 애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칠십년사를 발간했다.



PERFORMANCE

EXHIBITION

MOVIE

CONCERT

MUSICAL

JANUARY Culture

02

도라에몽 : 스텐바이미
(영화 상영)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자유 관람(무료)
☎ 899-1554

09

명탐정 코난 : 이차원의 저격수
(영화 상영)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자유 관람(무료)
☎ 899-1554

13

**정서진 가족 교육극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요술 항아리'**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2만원
☎ 580-1135

16

일곱난쟁이
(영화 상영)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자유 관람(무료)
☎ 899-1554

20

**2016 커피콘서트1
테너 김세일&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겨울 나그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24

퍼포먼스 가족 뮤지컬 '피노키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현장가 3만원,
예매가 1만 6천원, 단체 1만 1천원
☎ 010-4272-0002

24

변진섭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 1599-9354

23

**연수문화원 알핀로제
어린이 요들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821-6229

22

**인천시립교향악단
2016 신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20

**정서진 가족 교육극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편식쟁이 모험'**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2만원
☎ 580-1135

26

정글번치 : 빙산으로의 귀환
(영화 상영)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자유 관람(무료)
☎ 899-1554

27

**인천시립합창단
'오라토리오 아리아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438-7773

27

**정서진 가족 교육극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2만원
☎ 580-1135

28

**부평구문화재단 신년음악회
'국악으로 여는 2016'**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VIP석 5만원, R석 3만5천원,
S석 2만원, 시야 장애석 1만원
☎ 500-2000



31

**2016 클래식시리즈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파사렐라(반도네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 1588-2341

30

꼬마 마녀 요요와 네네
(영화 상영)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자유 관람(무료)
☎ 899-1554

30

**EBS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댄스댄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1566-6551

29

**EBS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댄스댄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1566-6551



정서진 가족 교육극 페스티벌 동심 물들이는 신년공연

아이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할 동화 속 이야기. 서구문화회관이 아주 특별한 가족 신년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도로시와 환상여행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는 화려한 무대와 조명 아래 신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아이는 물론 성인까지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프랭크 바움의 동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가 바로 눈앞에서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일정 1월 27일(수) 오전 10시 40분

착함의 지혜 일깨우는 '요술 항아리'

아이들에게 권선징악의 지혜를 일깨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작품. 무엇이든 넣으면 두 배가 되는 신기한 요술 항아리를 소재로 하여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한다. 인형과 사람이 함께 나오는 복합 인형극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아기자기한 소품도 볼거리다.

일정 1월 13일(수) 오전 10시 40분

글고루 먹어야 건강해요 '편식쟁이 모험'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비만이 되는 생활습관은 무엇일까? 균형식이란? 올바른 식습관이란? 음식과 가정, 친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뮤지컬 '편식쟁이 모험'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체험공연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등장시켜 친근하게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일정 1월 20일(수) 오전 10시 40분

장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580-1135, 010-2898-0014

2016년, 가슴 벅찬 선율로 열다

2016 병신년(丙申年). 한 해의 시작을 힘차게 알리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진 신년음악회로 관객의 가슴을 감동으로 꽉 채웁니다. 2016년 '클래식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는 '이무지치 신년음악회-파사렐라'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마련한 국악 관현악의 아름다운 무대도 관객의 넋을 빼앗아 가기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겨울 낭만 무르익다

'커피콘서트'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 (Matinée Concert)다. 전석 1만5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커피콘서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매력이다. 아름다운 미성의 소유자인 테너 김세일. 유럽 주요 무대에서 '에반젤리스트' 역으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는 그가 7개 국제 콩쿠르 1위 수상에 빛나는 젊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만나 슈베르트의 낭만을 선사한다. '보리수' '거리의 악사' 등 유명한 '겨울나그네' 속 명곡에 두 아티스트의 해설이 더해져 이 겨울을 따스하게 물들인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일정 1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천원
문의 1588-2341

국악으로 여는 2016년

한국을 대표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이 새해를 맞아, 아주 특별한 국악 관현악곡을 선사한다. 레퍼토리는 최성환 작곡의 '아리랑 환상곡'과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양방언 작곡의 '프론티어', 국악 소녀 송소희의 민요 메들리, 박범훈 작곡의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중 3악장 놀이' 등이다.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향연 속에 2016년을 특별하게 맞이하자.

부평구문화재단 신년음악회

일정 1월 28일(목)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VIP석 5만원, R석 3만5천원, S석 2만원, 시야 장애석 1만원
문의 500-2000

오케스트라와 국악의 '이유 있는 만남'

2016 병신년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아름다운 '신년음악회'를 마련했다. 무대 전반부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곡 중에서 가장 비엔나다운 걸작으로 평가받는 '박쥐' 서곡과 독일 작곡가 R.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모음곡'을 선사한다. 이번 연주는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며 콘서트홀을 일순간 왈츠가 흐르는 무도회장으로 만들 것이다. 후반부는 클래식과 국악이 조화롭게 펼쳐진다. 최성환의 편곡으로 완성된 '아리랑'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마당'을 사물광대와 협연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일정 1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1588-2341

웅장하고 아름다운 오라토리오 향연

인천시립합창단이 김종현 신임 예술감독과 함께 신년 맞이 특별 기획공연을 마련했다. 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특별히 고전음악의 대표 장르인 '오라토리오' 독창곡을 레퍼토리로 연주한다. 인천시립합창단은 김종현 예술감독이 부임한 후 정통 클래식의 진수를 선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모두를 위한 열린 무대로 펼쳐진다.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 새해의 시작을 뜻 깊고 아름답게 내딛기 바란다.

인천시립합창단 '오라토리오 아리아의 밤'

일정 1월 27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초대
문의 438-7773

비발디의 '사계' VS 피아졸라의 '사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16 클래식시리즈'의 첫 무대이자 '2014 이무지치 신년음악회 인천공연'의 앙코르 무대다. 이무지치는 비발디 '사계' 연주의 최고 권위자로 '사계' 전곡을 처음으로 연주하고 음반으로 제작, 전 세계에 16세기 이탈리아 음악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공연에서 이무지치는 비발디의 '사계'와 더불어 피아졸라의 '사계'를 들려준다. 주로 바이올린 편곡으로만 연주되던 피아졸라의 '사계' 오리지널 편곡 버전을 반도네온의 대가인 헥토르 파사렐라(Hector Passarella) 연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무지치 신년음악회 '파사렐라'

일정 1월 31일(일) 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1588-2341

역대 최대 국비, ‘지역개발’에 쓴다

2015년보다 17.6% 크게 증가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국비예산이 작년보다 3천667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2조4천520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예산은 2014년 2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5년 대비 17.6%라는 큰 증가율을 보였다. 역대 최대의 정부지원금 확보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의 살림살이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우리시 국비 예산의 두 자릿수 증가율은 울산 7.7%, 대전 6.7% 등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최상위권이다.

시가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은 시 공무원들이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게 주효했다. 시는 재정난으로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해 경기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게 됐다. 국비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주민편익과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반영됐다. 인천발 KTX사업에 35억 원이 배정됐다. 백령도 공항 건설사업은 기초 타당성 조사에 3억 원이 확보돼 섬 관광 활성화 계획에 동력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인천발 KTX사업은 민선6기 핵심공약

사업으로 그동안 고속철도 수혜에서 제외되었던 인천, 경기 서남부 650여 만 시민에게 획기적인 이동편의와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공무원, 시민이 한마음 한뜻 된 결과

2020년 개관 예정으로 추진되는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사업은 전시시설, 국제회의실, 체험관 등 건축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반영해 국제 문화교류와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 인천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도 원도심 지원 활성화 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해 원도심의 경제·문화·사회적 활력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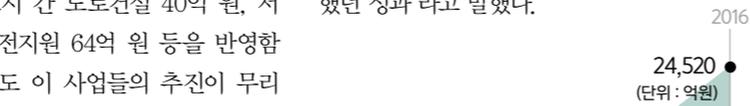
또한 주요 계속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1천643억 원, 서구~김포 신도시 간 도로건설 40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64억 원 등을 반영함에 따라 올해도 이 사업들의 추진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

아울러 인천신항 항로중심 준설공사,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공사, 인천보훈병원 건립 등 전액 국비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시비 매칭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액 국비사업 선정 등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고, 실·국장에게 국비 확보의 책임을 부여하는 목표 책임제를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가 이처럼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오직 인천 시민을 생각하고 한마음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 품으로’ (서인천IC~인천IC 구간)

경인고속도로는 47년 전 인천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였다. 이 도로는 47년간 대한민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관리주체가 인천시로 바뀐다. 인천IC부터 서인천IC까지다.

이번에 이관하기로 한 구간은 10.45km이며, 이관 시점은 현재 경인고속도로를 대신해 인천항의 물동량을 수송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준공시점인 2017년이다. 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인천IC~서인천IC 구간을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경인고속도로는 한때 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극심한 지체와 정체로 도로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또 고속도로가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옹벽 및 방음 시설이 도심단절로 이어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및 상부 일반도로화, 인천IC~서인천IC 이관 및 일반도로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지난해 초부터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해 이번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국토교통부는 이관 구간에 대한 합동조사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 인수인계 업



무를 시작해 이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시는 장기전략 차원에서 이관되는 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해 도화IC~문학IC까지 도심도터널을 건설해 도심 간 이동차량은 지하와 지상으로 분산하고 국철로 도로가 단절된 주안역 일대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원도심 발전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관 협약으로 인천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추후 이관이 완료되고 일반도로화 사업이 진행되면 도심단절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가 촉진되고 인천 중심의 남북도로망 구축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 세계적 ‘바이오산업 메카’ 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사를 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2018년이면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기업의 면모를 갖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2월 21일 송도국제도시 본사에서 연간 생산량 18만t 규모의 제3공장 기공식을 갖고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기업(CMO)’으로 도약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공식에 참석해 “제3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2018년 이 되면 송도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최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위상을 확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제3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능력이 36만t로 늘어 론자(Lonza, 26만t)나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24만t)등을 제치고 단숨에 세계 1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기업(CMO)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제3공장을 완공할 경우 650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010-7381-3456



각국조계 표지석, 원래 자리로 복원

근대기 인천항 인근 외국인 거주 지역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된 ‘각국조계(各國租界) 표지석’이 원래 자리에 복원됐다. 우리시는 2007년 중구 제물포구락부 복원공사 중 출토된 각국 조계석의 본을 떠 제물포구락부 옆 공터에 세우고, 작년 12월 17일 오후 3시 제막식을 가졌다. 이 표지석은 높이 104cm, 폭 37.5cm, 두께 32cm 규모로 진품과 똑같은 크기다. 앞면에 ‘各國地界(각국지계)’, 뒷면에 ‘朝鮮地界(조선지계)’라고 적힌 모양도 똑같다. 표지석 진품은 1980년 중구 내동 성공회성당 앞에서 발견된 또 다른 조계석과 함께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문의 시 문화재과 440-4483

송도에 항공산업 관련 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항공산업 관련 기업·교육·연구기관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내는 산학융합지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작년 12월 20일 우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시비와 민자 등 총 785억 원을 들여 인하대 소유 송도산업기술단지 내 1만6천400㎡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한다. 시는 이곳에 항공산업 관련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지어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국책연구소, 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083

2016 사회복지 예산 2조2천억 원 확대 편성

우리시는 2016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2015년 2조652억 원에서 1천557억 원(약 7.5%)이 증가한 2조2천20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시가 작년 12월 18일 실시한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 확대로 잠재적 취약계층을 7만2천 명에서 9만3천 명으로 확대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670억 원을 증액 투입한다. 또한,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2015년 대비 15% 증가한 96억 원을 투입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문의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3462

서구에 다섯 번째 구립 도서관 생겨요

인천시 서구에 다섯 번째 구립도서관이 들어선다. 서구는 시·구비 57억 원을 들여 2017년 4월 검암동에 검암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2천998㎡) 규모로 디지털 시설과 다양한 간행·정보 자료를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서구에는 현재 구립도서관 4곳과 작은 도서관 48곳이 있다. 이 밖에 인천시가 작년 6월 청라국제도시에 문을 연 청라호수도서관과 국제도서관 등 2곳이 있다.

문의 서구청 560-5912

달빛공원 생태교육관 앞 무료 썰매장 운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 생태교육관 앞에 무료 썰매장을 운영한다. 썰매장은 이달 6일부터 2월 4일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된다. 인천경제청은 얼음썰매 50대를 마련, 예약 없이 무료로 빌려줄 예정이다. 송도 달빛공원은 인천지하철 테크노파크역에서 도보로 5분 내 거리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날씨에 따라 개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할 땐 개장 여부를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 인천시시설관리공단 721-4406, 인천경제청 453-7257



새해 첫 일출은 문학산 정상에서!

올해 1월 1일 문학산 정상은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전 7시부터 개방된다. 새해 첫날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8분이어서 등산객이 정상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해발 217m 문학산 정상은 군부대 시설 때문에 지난 50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우리시는 군부대와 협의 끝에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 정상부를 시민에게 개방했다. 평소 개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문학산 일대는 기원전 18년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개국한 곳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곳이다.

문의 시 문화재과 440-4483

인천 올해 말 국내 최대 면적 도시 된다

우리시가 올해 말이면 국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도시가 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은 올해 1월 기준 면적이 1천47km²로 울산 1천60km²에 이어 면적에서 국내 2위다. 3위는 대구로 883km², 4위 부산 769km², 5위 서울 605km², 6위 대전 539km², 7위 광주 501km² 순이다. 우리시가 올해 국내 최대 도시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거대한 크기의 미등록 토지들이 대거 토지대장 등록을 앞두고 있어서다. 우선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1·2매립장과 시설단지 8.96km²의 땅이 우리시로 편입될 전망이다.

문의 시 토지정보과 440-4598



‘生生 아이디어 공모대전’ 시상식 열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윤희우 회장)는 미래 인천발전 ‘생생 아이디어 공모대전’ 시상식을 지난해 12월 28일 송도미추홀타워(20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천 시민의 애향심고취를 바탕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미래 인천발전 ‘生生 아이디어 공모대전’을 처음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본상(일반인·대학생 / 초·중·고등학생) 수상자 12명을 비롯해 본상에는 속하지 않지만 인천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20건을 선정해 격려상을 시상했다. 일반인·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미추홀 로드’의 윤버리 씨와 염진선 씨, 정지은 씨, 윤지원 씨가 공동 수상하였고, 초·중·고등학생부문 최우수상은 ‘돈을 달 따라 자전거 여행’을 제안한 이진아 양과 순수현 양(강화여자중학교)이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협의회는 당선된 아이디어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인천사랑시민협의회 439-0493



남구, 동구 개명 추진



인천시 동구와 남구가 50년 가까이 써 온 이름을 바꾼다. 과거 행정편의에 따라 단순히 방위 개념으로 정해진 이름을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보려는 취지다.

이는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 동구와 남구가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 처음으로 구(區) 제도가 생겨 1월 1일 같은 날에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구가 함께 설치될 때만 해도 작명 기준은 간단했다. 인천 중심부인 중구를 중심으로 동쪽은 동구, 남쪽은 남구가 됐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하면서 동구는 오히려 인천의 서쪽에 있게

됐다. 남구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가운데에 있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의 이름이지만 방위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을 안게 됐다.

시는 이에 대해 당장 이름을 바꾸려면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투입 비용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는 동구와 남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년층도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시대. '47세 중년의 남구·동구가 개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440-2423

송도교량 5개 “새 이름 얻었어요”

송도국제도시와 이어지는 교량 5개가 새 이름을 얻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1~5교 명칭을 공모해 교량당 대상 1개, 우수상 2개를 선정했다. 대상은 송도1교가 캠퍼스타운교, 송도2교는 컨벤시아교, 송도3교는 아트센터교, 송도4교는 바이오교, 송도5교는 하버교가 선정됐다. 이 명칭은 각 교량이 캠퍼스타운·송도컨벤시아·인천아트센터·송도바이오단지·인천신항과 연결되는 특성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083

올해 6개 학교 개교

올해 인천에는 신시가지 중심을 모두 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 작년 12월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개교 예정 학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 1곳이다. 3월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연송초교(24학급)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고교·15학급), 서구 마전동에 마전고교(24학급)가 각각 개교한다. 이어 9월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예송유치원, 남구 용현동에 용학초교(36학급), 남동구에 청선학교(특수학교·30학급)가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인천시 교육청 420-8225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첨단 전시·회의시설인 송도컨벤시아의 2단계 사업이 작년 12월 22일 공사를 시작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가동률이 포화상태인 송도컨벤시아 1단계 시설(연 면적 5만2천㎡)의 서편에 2018년 6월까지 1단계와 같은 외관으로 연 면적 6만4천㎡ 규모의 첨단 컨벤션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송도컨벤시아 1단계 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900부스 이상 설치 가능한 대형 전시장(1만6천000㎡)을 갖추게 된다. 포스코 건설 주도로 민간투자건설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083

중구 사렘도, 환경친화적 유원지로 개발

인천 무인도 128개 중 중구 사렘도가 처음으로 환경친화적 유원지로 개발된다. 우리시는 작년 12월 23일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렘도 유원지 개발계획을 가결했다. 사렘도에는 18개 객실을 갖춘 펜션, 야외공연장, 해양데크 등 휴양시설과 연회장·레스토랑·전망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숲과 조화를 위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기암 지역·백사장은 원형 그대로 보존된다. 총사업비는 110억원으로 민간사업자인 (주)사렘도유원지가 투자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까지 유원지 개발을 마치고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문의 시 시설계획과 440-1702



리포&시저스 카지노 복합리조트 착공 전망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의 선도사업인 리포&시저스(LOCZ)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올해 상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OCZ 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의 기본설계와 경관심의 등을 거쳐 최근 건축허가를 받았다.

LOCZ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미단시티 내 3만㎡에 8천억 원을 투입해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콘도 등을 지어 1단계로 2018년 개장할 계획이다. 2단계는 복합쇼핑몰, 다목적 공연장, 고급호텔 등을 추가로 건립해 2022년 개장한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343

송도에 미쓰비시엘리베이터 연구개발센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미쓰비시엘리베이터 연구개발(R&D)센터가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 12월 15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와 R&D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센터는 일본 미쓰비시전기가 해외 법인에 건립하는 최초의 엘리베이터 글로벌 R&D 센터다. 센터는 송도 5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1만8천22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4월 착공해 2017년 2분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083



포화 견딘 월미산 나무, ‘평화의 상징’된다

1950년 9월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엎은 인천상륙작전의 집중포화 속에서 도 곳곳이 살아남은 인천 월미산의 나무들이 평화의 상징이 된다. 인천시는 중구 북성동 월미산의 나무들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이전부터 살아 있는 고목 7그루를 최근 '월미 평화의 나무'로 지정했다.

이번에 '월미 평화의 나무'로 선정된 나무는 은행나무 2그루, 느티나무 1그루, 상수리나무 1그루, 빛나무 1그루, 회백 1그루, 소나무 1그루 등이다. 시는 선정된 '월미 평화의 나무' 각각의 수목이 갖는 사연을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관광인프라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 시 서부공원사업소 440-5923

사진으로 보는 2015년 시민행복 위한 희망 의회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35명의 의원들이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모토로 1년 6개월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동안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소하고, 실타래처럼 엉킨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인천시의회가 보여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사진으로 돌아보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2016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1.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 2천여 명이 인천시의회를 찾았다. 인천시의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의정아카데미와 의회견학, 의회방청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열린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의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며 무한 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시의회.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의원들의 의정비를 매월 적립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랑의 나눔 장학금 조성활동도 8년째 이어오고 있다.



3.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을 펼치며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재정 건전화, 교복 반값 실현 등 50여 회에 걸친 토론회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결정에 반영했다.

4. 인천 현안 살뜰하게 살펴

인천시의회는 2015년 2월까지 안전관리 특위를 운영하며, 인천시의 전 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현재는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안 특위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인천 알리기

인천시의회가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각국에 인천을 알리고 있다. 중국 허난성 인민대표대회를 비롯해 일본 기타큐슈 의회 등 11개국 14개 도시와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6. 실생활에 도움 주는 민생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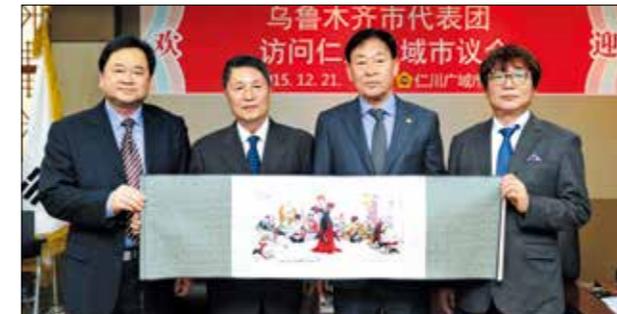
7대 의회는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214개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이 중 86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의정발전 토의

인천시의회는 작년 12월 18일 영빈관 회의실에서 '2015년도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도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전체 회의 1회, 과 회의를 3회 열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토의와 자문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체 회의는 자문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7대 의회의 성과와 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회의 안건인 2016년도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계획과 7대 의회 추진 성과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개진됐다.

중국 우루무치시 대표단, 시의회 방문



중국 우루무치시 대표단이 양 도시의 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경수 의장은 "우루무치시는 중국 서북지역의 최대도시이자 신강성의 경제·문화·무역의 중심지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신장구 중심 자원기지"라고 소개했다. 워더 양 우루무치시 주석은 인천시와 성공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더욱 진전시켜 양 도시의 새로운 도약에 발판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위원회 업무연찬회 열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영종도에서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2015년도 회기를 마감하면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2015년도 교육위원회 회기별 안건심사 결과를 분석하여 의원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2016년도 교육위원회 운영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정판례 및 유권해석을 연찬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용덕 교육위원장은 "위원들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해 화합을 다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6년도에는 더욱더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위원회가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반대' 1인 시위

인천시의회가 작년 12월 4일 국회 앞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날 시위에 나선 이용범 시의원은 "정부가 해경본부 이전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인천시의원 전원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무기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해경본부도 인천 송도에서 세종시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시의회·시민사회단체는 "해상 치안 전담기관인 해경본부가 바다를 떠나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장을 도외시키는 위험한 행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모니터요원 소양교육 실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2기 의정모니터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모니터 요원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재작년 7월 출범한 인천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 요원은 총 55명이다. 그동안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불편사항 제보, 미담수렴사례 발굴은 물론 자치입법의 제·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랑의 연탄후원금, 행복나눔에 전달

인천시의회는 작년 12월 15일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2015 사랑의 연탄 후원금 7백만 원(연탄 1만4천장)'을 행복나눔인천에 전달했다. 시의회에서는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고 절감한 예산으로 행복나눔인천에서 추천받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인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70가구에 사랑의 연탄을 200장씩 지원한다. 행복나눔인천은 민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시민 참여형 통합복지 시스템이다.

Info box

연수문화원, 겨울학기 문화학교

연수문화원은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학기 문화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기간 1월 4일(월) ~ 2월 29일(월), 2개월
 접수기간 선착순 마감
 장소 연수문화원
 문의 821-6229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 시각예술 : 생명융합교실, 창의로봇, 도자기찰흙놀이 외
- 공연예술 : 토요기타, 오들송, 우쿨렐레, 플루트 외
- 전통예술 : 토요가야금, 대금&소금, 해금 외
- 인문통합예술 : 청소년 독서토론&논술, 미술로 생각하기 외

성인 프로그램

- 시각예술 : 캘리그라피, 구도가 좋은 사진찍기, 색연필 야생화 외
- 공연예술 : 바이올린, 우쿨렐레, 하모니카, 가곡, 난타 외
- 전통예술 : 사물, 서예, 대금&소금, 민요, 가야금, 한지, 해금 외
- 인문통합예술 : 서바이벌 잉글리시,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한국사 외

함께해요! 제9기 청소년운영위원회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기획 및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대상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활동에 참여할 14~19세 청소년

활동기간 2~12월

활동내용 매월 1회 정기모임,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 축제, 캠페인 참여 등

활동특전 우수활동위원 대학입시전형 추천서,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및 우수활동위원 표창,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월 13일(토)
- 면접심사 : 2월 20일(토)
- 오리엔테이션 : 2월 27일(토)

신청방법 신청서를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문의 766-1318

다자녀 가정을 위한 아이모아 할인 업소 모집

우리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아이모아카드 소지자들에게 자체 할인 혜택을 주는 업소 및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기간 11월 30일 ~ 지속
 대상 자체 할인이 가능한 업소 및 사업장(음식업, 미용업, 병원 등)
 할인을 업소 및 사업장에서 자율결정(참여승낙서에 기재)
 참가신청방법 참여승낙서를 보육정책과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440-8725
 참여업체 혜택
 - 아이모아 카드 협력 가맹점 스티커 발부
 - 아이모아 홈페이지 업소 홍보(2016년 1월 개편 예정)
 - 밴드 가입 초대 : 개별 홍보 활동 가능
 문의 440-2754

부평역사박물관 '신촌 다시보기' 기획전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을 다시 보는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관람기간 2월 21일까지
 장소 부평역사박물관
 문의 515-6471

2016 인천시 블로그 기자단 모집

인천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제4기 인천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인천의 아름다움과 생생한 시장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대상 인천지역 취재가 가능한 분으로서 평소 인천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인천시민 및 인근 타지역 거주자
 모집인원 00명(대학생 및 일반인)
 지원자격 인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천지역 현장 취재활동이 가능한 분(기사작성 월 1건~4건)
 • 글쓰기 및 사진·동영상 촬영에 능하고 블로그 및 SNS 운영이 활발한 분
 모집기간 1월 17일(일)까지
 문의 440-3044

'2016 광저우 춘계 수출...' 참가업체모집

우리시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6 광저우 춘계 수출입상품 교역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2016 광저우 춘계 수출입상품교역회 (119th Canton Fair/1기)
 전시기간 4월 15일(금) ~ 19일(화), 5일간
 전시장소 중국 광저우 Pazhou Complex of China Import & Export Fair
 신청품목 전자 및 가전제품, 건축자재 및 철물, 기계 설비 등
 문의 260-0200



해반문화의 손수건 지도 주문

사단법인 해반문화의 손수건지도 만들기는 인천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한 인천 사랑의 마인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시리즈 제작된 손수건(백령도)은 인천의 관광 상품과 연계해 그 의미를 더 합니다.

- 주문 제작에 따라 1천부, 2천부 등
- 해반문화에서 디자인 도안(시리즈 1, 2, 3, 4)을 제공하고 주문처로 상품을 배부
- 인천의 관광지 방문상품 대체 가능성/ 인천기업의 홍보물/ 인천 모임의 기념품 등으로 구상
 문의 761-0555

울목도서관 1월 문화예술 행사

울목도서관은 새해 1월을 맞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울목도서관 1월 겨울독서교실

- 제목 : 제92회 겨울독서교실 '밤톨이네 이야기 책방'
- 기간 : 1월 19일(화) ~ 22일(금) 오전 9시 ~ 12시, 4일간
- 대상 : 지역 내 11세 ~ 12세 어린이 20명
- 장소 : 울목도서관 별관 어린이자료실
- 주요내용 : 참여자가 세상에 한 권뿐인 이야기책을 만드는 활동
- 참여방법 : 학교장 추천, 개별 유선, 방문 신청
- 참가비 : 무료
- 문의처 : 770-3808, 3811

2016년 특별프로그램 1기 생활과학교실

- 기간 : 1월 7일(목) ~ 3월 17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 대상 : 지역 내 8세 ~ 11세 어린이 15명
-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 주요내용 : 생활 속 과학원리를 배우는 쉽고 재미있는 실험·체험활동
- 참여방법 : 안내데스크 방문(권장) 및 전화 신청
- 참가비 : 무료
- 문의 : 770-3809

동인천동 통장 공개 모집합니다

인천시 중구는 통·반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통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17통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 구역 2년 이상 거주하고(주민등록 기준) 민법상 성년인 자
- 통 관할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구정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자
 ※ 해당 통 · 반장이 통장 지원시 반장 사직서 제출해야 함

모집일정

- 1월 8일(금) 오후 6시까지(본인 방문신청만 가능)
- 면접일 : 1월 13일(수)
- 최종 합격 통보 : 1월 19일(화)
- 문의 : 760-6205

Info box

상반기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계양구는 2016년 상반기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인원 19명
근무기간 2월 1일(월) ~ 6월 30일(목)
접수기간 1월 15일(금)
접수방법 계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의 450-5765

도움이 필요하다면, 복지रो에 신청

삶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바로 복지रो에 신청하세요.
복지로(www.bokgiro.go.kr)에 신청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건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문의 02-6360-5522

2016 스마트공장 지원 참여기업 모집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스마트공장 추진단'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역량 혁신을 강화하고자 삼성전자(주)와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1월 ~ 2017년 12월 (2년)
지원분야 공장운영시스템 및 제조자동화 등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5천만 원(1:1 매칭)까지
사업비 50% 지원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문의 458-5022, smartfactory@icce.or.kr

다양한 혜택 '기획공연 시즌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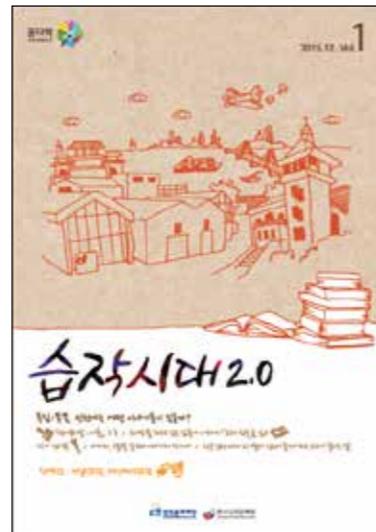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은 2016년 상반기 기획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즌 패키지를 이용하면 풍성하고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시즌 패키지		
패키지 명	공연 명	할인율
브런치 패키지	브런치콘서트 3편	총 금액의 20%
키즈 패키지	부평키즈페스티벌 공연 3편	총 금액의 20%
MUSIC 패키지	데이징과 친구들, 천변살롱, 손민수 리사이틀	총 금액의 30%
통합 패키지	5편 이상 구매	총 금액의 40%

문의 500-2000(전화예매 1588-2341)

'습작시대 2.0' 제작과정 전시

인천문화재단은 지난해 하반기 근대문학관의 토요문화학교 아우름 프로그램인 '다시 쓰는 습작시대'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전시합니다. 또 내년도 아우름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등학교를 모집합니다.



전시기간 2월 28일까지
장소 한국근대문학관 로비
2016 토요문화학교 아우름 프로그램
• '문학관에서 큐레이터가 되어보자' (3~7월)
• '다시 쓰는 습작시대'(8~12월)
문의 455-7163, onde@ifac.or.kr

온맵시로 체온은 높이고 온실가스는 줄이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溫)맵시 캠페인'을 전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나만의 비법(이것만 실천하면 1년에 0.5톤 감축)
• 겨울엔 온맵시, 여름엔 쿨맵시
• 일주일에 한 번만 운전대를 놓으세요.
• 나의 휴식시간은 컴퓨터 절전시간, '그린터치' 설치하기
• 음식물도 에너지로 만들어요. 먹을 만큼만!
※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www.kcen.kr)

연수문화원, 단기 및 겨울방학 특강

연수문화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특강을 단기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시간이 없어 장기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상	일시	프로그램명	재료비 및 수강료
아동·청소년	1월 13일(수) (오전 10시~11시 20분)	과학교과 실험 미리 하기 '흰 나비 살이 모형' 등 2종(예비초등학교 3학년)	수강료: 1만 원 재료비: 2만 원
	1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12시 50분)	과학교과 실험 미리 하기 '혼합물 분리하기' 등 2종(예비초등학교 4학년)	수강료: 1만 원 재료비: 2만 원
성인	1월 6일(수) (오후 1시~2시 30분)	생명과학 체험하기 '도전! 공룡 발굴', '누에야 고마워' 2종(예비초등학교 1~2학년)	수강료: 5천 원 재료비: 1만 원
	1월 15일~2월 5일(금)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천연 아로마 세러피 (교보습 천연 로즈스킨 외 3종)	수강료: 2만 원 재료비: 1만 원
	1월 12일, 19일(화) (10시 30분~12시)	겨울을 담은 깜찍한 가족체인 솔더백과 동전지갑	수강료: 1만 원 재료비: 4만 원
	1월 26일~2월 16일(화) (10시 30분~12시)	식탁을 품위 있게, 파티를 아름답게 하는 마법의 테이블 데코	수강료: 1만5천 원 재료비: 1만 원

신청방법 인터넷(call.yeonsu.go.kr) 및 방문, 821-6229

지방세 탈루, 은닉재산 제보에 최대 1억원

우리는 지방세 탈루,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의 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정의를 실천하고자 인천ETAX(인천시 전자과 지납부시스템)에 시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기간 연중
제보자격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누구나
제보방법 인천etax(etax.incheon.go.kr)에 접속해 내용 입력
제보혜택 인천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최대 1억원)
문의 440-5982

세종문화상 후보자 추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기리고자 문화창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단체에 세종문화상을 포상하고자 합니다.
포상내용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협력 봉사, 문화다양성 5개 부문 각 1명(총 5명, 대통령 표창 및 부상 각 3천만 원)
※ 포상 규모는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간 2월 19일(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문의 044-203-2539~40

'든든한 후원' 참여해 주세요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아트센터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문화재단 후원회에 참여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후원회 활동과 지원사업
- 후원회원의 날, 총회 등 회원대상 특별행사
- 바자회 등 수익사업을 통한 후원금 모금
-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지원 사업 개발 및 운영
- 후원회 홍보 및 후원회원 증대를 위한 대외활동
- 기타 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및 활동
후원회 신청방법
- 후원회원 가입절차: 후원회신청서 제출 → 가입 승인 → 회비납부 → 가입

• 후원회 가입방법
- 방문신청: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우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문의 500-2000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우리 도자기' 특강

녹청자박물관에서는 신나는 겨울방학을 맞아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우리 도자기'라는 주제로 방학특강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우리 도자기			
요일/시간	1월 20일(수)	1월 21일(목)	1월 22일(금)
오전 10~12시	도자기의 역사 및 녹청자 전시 해설	도자기 제작 과정 영상물 상영	화분 만들기
	초벌그릇에 그림 그린 후 유약 바르기	비누통 만들기, 물레성형으로 다양한 그릇 만들기	수료식 및 11시 30분 12시 수료증 수여

문의 560-2932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김중배가 준 반지가 그렇게 좋더니

1978년 아직 굴업도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그곳으로 농활을 갔다. 주민들을 위해 여장(女裝)을 하고 '이수일과 심순애' 연극을 했다.
조예현 산곡동 마장로



40여 년 전 전통의 청학풀장에서

그 옛날 인천사람들의 물놀이 명소였던 청학풀장에서 보낸 어느 여름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즈음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는 스크린 속 여배우 못지않게 참 곱습니다. 아름답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임순희 연수구 센트럴로



장원

1962년 송현초등학교 앞 비행사들

1962년 인천 송현초등학교 앞. 저는 아홉 살 동생은 세 살일 때, 동네에 사진사 아저씨가 오셔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비행기는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던 시절. 동생은 20여 년 전 진짜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저지로 날아가 살고 있습니다.
김미숙 서구 완정로



1993년 여름,
어린이 모델 되던 날

1993년 여름, 아이가 을왕리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백사장과 푸른 숲이 사진을 한층 멋지게 꾸며주었습니다. 황광철 서울 송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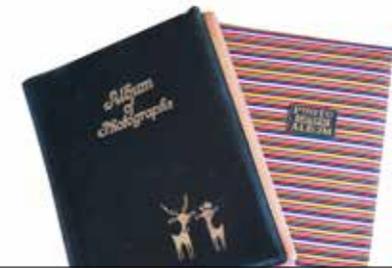


40여 년 전 작약도

40여 년 전,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작약도에 놀러 갔습니다. 바다 구경을 하다가 발밑에 지천으로 널린 굴을 보고, 수영에서 굴 따기로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임세자 연수구 경원대로

인천시민의 '가족 앨범'을 공모합니다 빛바랜 앨범 속, 추억의 향기를 찾아

지금 장롱 속에 숨어 있는 앨범을 꺼내, 옛 추억에 잠겨 보세요.
넓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과 추억의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가족 앨범을 공모합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독자 앨범' 응모에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15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인천시 대변인실 별실(민원동 2층)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을왕리 노을보다 아름다운 가정

글 박원형(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천지부 가족치료전문상담사)



우리 상담소를 처음 찾아오는 분(내담자)들은 문을 여는 순간의 모습부터 다르다. 옷을 예쁘게 입기보다는 늘 집에서 입던 편한 모습, 화장으로 자신을 감출 여유도 없이 푸석한 얼굴로 들어선다. 문을 활짝 열면서 힘차게 들어오기보다는 문밖에서 서성이다가 살짝 문을 열고 얼굴을 반쯤 들여놓고는 “자...” 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한다. 사실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는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할 것이 틀림없다.

이혼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마치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날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바닷가의 새 한 마리 같은 모습이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다.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누군가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몇 차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주변을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았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는 거의 동시에 ‘아하’라는 말을 한다. 기쁨의 감탄사다. 심지어는 함께 눈물도 흘린다. 눈물은 영혼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흘리는 마음의 배설물이다. 마음이 치유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되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눈물을 흘리

면 상담자도 같이 울게 된다.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눈물이 내담자를 치유하는 시간이기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공존한다.

상담은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이고 상담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 그래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며 “이제는 상담을 그만와도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할 때 무엇보다 기쁘다. 그들을 배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도 문제는 있겠지만 이번에 풀어본 것처럼 계속해서 잘 풀어가며 삶의 행복을 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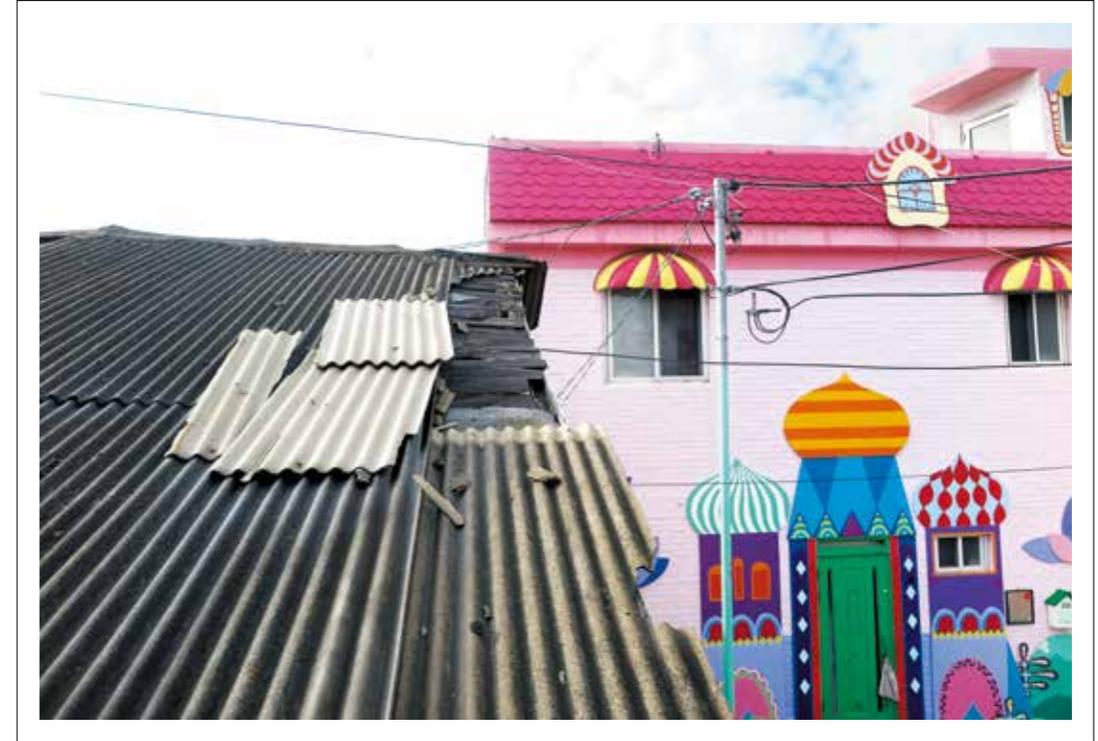
많은 사람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동해로 향한다. 하지만 인천에 살다 보면 을왕리의 석양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시간과 돈도 절약된다. 이 계절에는 오후 4시경 서쪽 하늘을 보면서 을왕리로 향하면 멋진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2016년 올 한 해를 마무리 할 때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석양뿐이 아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혼하지 않고, 주먹질하는 사람이 없고, 슬픈 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가정들을 보고 싶다. 그런 2016년 연말을 기대하며 또 한 해를 출발해 본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 GOD ‘춧불하나’ 가사 중에서

때론 유행가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 경우가 있다.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려면 외로운 이 곁에 있으면서 마음을 읽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우리 서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가사를 골랐다.



동화와 비(非)동화

“옛날 옛적에..... 그렇게 둘이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모든 동화는 해피엔딩이다.

동화책 마지막 페이지의 끝 단어는 ‘행복’이다.

비록 인생이 비(非)동화일지라도

2016년 올 한 해는

동화처럼 행복하길 꿈꿔 본다.

- 중구 송월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